세계무대로 진군하는 국민기업

한글과컴퓨터 백종진 대표

한껏 여유가 묻어나는 몸짓과 슬며시 새어나오는 그의 웃음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위기에 몰렸던 한글과컴퓨터를 다시 국민기업으로 당당하게 일으켜 세웠기 때문이다. 오늘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그의 미소가 아름답다.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그의 자신감이 세계로 진군하는데 있어 넉넉한 자산이 되고 있다.

다들 불경기라고 한숨 짓는 요즘,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올리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기업이 있다. 그 주인공은 올해 3분기 매출액만 무려 354억원에 이르고 있는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지난해 43억원의 이익을 거두며 4년만에 흑자로 돌아선 후 그 여새를 질풍같이 몰아가고 있다.

한때 적자기업으로 쓰러져가던 한컴을 부활시킨 주역은 단연 백종진 대표이다. 지난해 4월 프라임산업이 인수할 때만 해도 한컴의 앞날은 불투명했다. 그러나 그해 6월 취임한 백대표는 불과 1년여 만에 한컴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았을 뿐 아니라 국산 소프트웨어산업에 청사진까지 제시하고 있다.

국민기업으로 재기하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워드가 시장 점유에 실패한 나라 한국. 그 배경에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국내시장 90% 이상을 점유한 최고의 국민기업 한컴이 있었다.

1990년에 창립된 한컴은 경쟁력 있는 자국어 워드프로세서를 앞세워 '정보 자주독립' 을 실현해왔던 것. 그러나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한컴에 걸었던 국민적 기대는 모두 무너지는 듯했다.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신뢰 회복이 급선무였습니다. 직원, 소비자, 주주들에게 한컴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심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백대표는 먼저 취임 첫해 발생한 이익의 30%(12억원)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경영난으로 고생해온 직원들의 자신감 회복과 사기진작을 위해서였다. 또한 작년 12월 '한컴오피스 2004' 를 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켰다.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를 주인 없는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소비자는 없기 때문이다.

"한글에만 더이상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넥셀(표계산 프로그램)과 슬라이드(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를 추가함으로써 토종 오피스프로그램을 자체 보유하게 된 셈이죠. 이로써 우리나라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MS오피스프로그램에 대항할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컴오피스 2004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물론 중앙부처인 과학기술부로까지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최근에는 더욱 기능이 보강된 한컴오피스 2005가 출시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기업으로 다시 돌아온 한컴이 우리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지키기 위한 발판을 차근차근 구축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MS에 맞설 첨병이 되어

한컴오피스 2004를 출시하며 MS오피스에 첫 도전장을 내민 백종진 대표. 한컴이 국민기업을 넘어 세계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맞서겠다는 그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필적하는 2가지 비밀병기가 있죠. 하나는 3~4년 내에 데스크탑 시장을 이끌어갈 '리눅스 프로그램 시장 선점' 이고, 다른 하나는 윈도우 · 맥킨토스 · 리눅스 등 멀티플랫폼을 지원하는 사무용 SW '씽크프리오피스프로그램' 입니다."

리눅스는 윈도우 진영을 무너뜨릴 대표적인 공개 SW이다. 그러므로 이 시장에서 누구보다 빨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이 백대표의 전략이다.

목표한 전략을 이루기 위한 핵심전술은 '아시아눅스 2.0' . 지난 10월부터 중국, 일본과 손잡고 서버용 리눅스 운영체제인 아시아눅스 2.0의 공동 개발에 돌입했다. 공동 작업이 끝나면 이 아시아눅스에 연동되는 자체 응용 SW를 개발해 국내외의 대표적 리눅스로 자리매김해나갈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 인터뷰에서 위험요소로 지적한 바 있는 씽크프리오피스프로그램 또한 백대표가 믿는 최고의 무기이다. 일반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무리없이 갖추었을 뿐 아니라 가격은 MS오피스의 1/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곧 15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시장으로 출시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더이상 종속될 수는 없습니다. 한컴이 리눅스사업을 주도해나갈 것입니다. 한컴의 오피스사업도 결국 윈도우 기생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MS사의 아성을 무너뜨릴 리눅스와 씽크프리오피스프로그램을 모두 겸비한 한컴. 백종진 대표의 넘치는 자신감 속에는 기술경쟁에서 누구라도 이길 수 있다는 무서운 집념이 숨어 있었다.

한컴오피스 2005 출시!

더욱 기능이 업그레이된 '한컴오피스 2005' 가 최근 출시되었다. 한컴의 오피스작업은 추후 3~4년내 부상하게 될 리눅스용으로 포팅 작업 중이다. 윈도우용 한컴오피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리눅스 세상이 오더라도 익숙한 사용법 그대로 리눅스용 한컴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